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1년도 표어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행동지침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새 예배당 입당감사

# 감사와 축제 행사 계속된다.

### - 21일(수) 미술전, 23일(금) 신학 심포지움 열려 -

새 천년에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10가지 축제 행사 중 두 가지가 이번 주간에 열리게 된다. 기독교 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술전람회를 열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삶을 추구하는 교회모습을 추구하는 뜻으로 신학심포지움을 연다.

미술전은 21일(수) 오전 10시30분 5층 현관에서 테이블을 깔게 된다. 이 날 당회원, 권사회, 스테반회, 남녀 전도회 임원

들이 참여케 될 것이다.

한편 23일(금) 오후7시에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릴 신학 심포지움에서는 원종천 박사(Acts교수)와 임희완 박사(건국대 교수)가 칼빈의 경건 사상과 영성 그리고 청교도의 경건 생활과 한국교회라는 제하의 강의를 하게 된다.

이날 금요 철야 예배는 신학 심포지움 관계로 모이지 않는다.

## 수화 뮤지컬 <침묵의 소리> 공연

오늘 찬양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수화 뮤지컬 <침묵의 소리> 를 공연한다.

김옥겸 집사의 연출로 극단 밧모심(대표 정택진-KBS 수화통역자)이 수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공연하게 된다. 특별출연으로 밀알 수화찬양단의 수화찬양이 있으며 공연 후 만나 홀에서 간단한 다과회도 가질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굶주리는 이들에게 밥한그릇을!

우리 교회 8층 만나 홀은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일뿐 아니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장소이다. 교인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식사를 대접받는 이들에게 부담감이 있으나 식사는 자유롭게 하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밥 한끼 대접하려는 정성의 헌금통이 문 앞에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지난주 이모저모



새 가족부 교사수련회-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며

예배위원 예절교육 - 더욱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총성! 하나님께 영광을 - 자매부대 육군3사단 군중병들



예배를 마치고 비전2020운동 임원들과 함께

## 겨울 성경학교 부서별 진행

부서명	기간	강사	장소
유치부	2.26-27	이종윤 목사 최지혜 전도사	교회
유년부	2.26-27	이종윤 목사 이영희 전도사	교회
초등부	2.26-27	이종윤 목사 심미숙 전도사	교회
중등부	2.22-24	이종윤 목사 이태훈 전도사	교회
고등부	2.22-24	이종윤 목사 이태훈 전도사	교회
대학부	2.19-21	이종윤 목사 장경철,김유돈 목사	교회
청년부	2.28-3.1	이종윤 목사 고경선 목사	성광기도원
사랑부	3.1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교회

### 이번주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개역개정판 에베소서 5장8-9절)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for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 Eph 5:8-9)

이사야서 강해

#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사야 42:10 - 17



이중윤 목사

선지자는 온 땅 거민에게 여호와를 찬미할 것을 권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하십니다.

##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하신다

'이방인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새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새 일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 일에 대한 노래, 아직 알려보지 못한 감격스런 노래로 하나님 계시에 대한 감격의 응답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10절). 전에는 여호와의 노래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기쁨과 찬미의 노래가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르며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곧 '땅 끝'에 사는 이들에 의해 찬송될 것입니다. '선원과 상인들', 항해하는 자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이 찬송합니다. 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계달의 촌락들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라미아 광야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 이스라엘의 아들인 계달과 에서의 족속인 바위에 거하는 백성 셀라의 주민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찬송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다스리심이 크고 넓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해야 합니다.

## 2. 심판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귀를 대항하여 용사같이 싸우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신다'는 것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을 누르시는 그리스도 말씀의 위세를 말합니다. 베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질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침았으나 내가 계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14절). 하나님은 그 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나 필경은 세계적으로 구축의 대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계산의 수고를 통해 아기를 계산하듯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을 조성하시기 위해 부르짖으십니다. 계산하는 산모의 사랑과 애정과 온유하심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십니다.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14절)를 히브리 정경으로 보면 '파괴하고 삼키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기쁨이며 멸망할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썩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15절). 메시아가 오시면 열강을 파멸시키고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 소련을 무너뜨리시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셨으며 또 휴전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16절).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된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됨을 말합니다(16절).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했습니다(요 14:6). 결국 역사의 최종

방향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며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하시고 굵은 테를 곧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16절).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눈 먼 자를 알지 못하는 길에서 인도하여 흑암에서 광명을 보여주고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17절). 복음이 어방에 전파될 때에 이교의 우상숭배는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전리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우상이 터파됩니다. 재래의 죄악 사회를 흔들고 여둠의 세력을 장악하던 우상이 광명의 빛이 비추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우상은 햇빛 앞에 어둠이 흩어지듯 사라지고 열 앞에 눈이 녹듯 사라집니다. 복음은 불의를 물러가게 합니다. 전리가 오면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주석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낚으면 그 고기는 물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 곧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어 복음이 전파되면 불신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단지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멸을 당하지 않게 할 힘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우상을 섬긴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제1회 서울 신학 심포지움 강연자 인터뷰

요즘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는 계몽지도의 완성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기술문명이 갈수록 첨예하게 발전하는 한편,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건과 영성으로 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작금의 시대의 단상이다.

서울교회는 잃어버린 경건과 잊혀져 가는 영성의 회복을 위해 오는 23일(금) 제 1 회 서울 신학 심포지움을 열고, 특히 <경건과 영성> 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진지한 돌아봄의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부는 제1강(칼빈의 경건사상과 영성)을 맡아주실 원종천 교수님과 제2강(청교도의 경건 생활과 한국교회)의 임희완 교수님을 미리 인터뷰했다.

먼저 제1강, 칼빈의 경건 사상과 영성을 맡아주실 원종천 교수를 소개한다. 평소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호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원 교수님은 현재 남서울 교

회(반포동 소재)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특히 이종윤 당회장 목사님과 다양한 친분관계를 맺어오셨다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선 후배관계이자 이종윤 목사님이 교수로 봉직하시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현재 원 교수님께서 12년 째 봉직하고 계신다.

현대사회에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꼽는 원 교수님은 우리 한국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임을 강조하시고, 나의 문제에 부딪히면 면해온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번 강연을 통해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실 예정이다.

특히 원 교수님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비 신앙의 목소리와 눈들의 비판을 경계하되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한국과 나아가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다. 아울러 귀하신 이종윤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의 봉헌, 또한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노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셨다.

제2강 청교도의 경건생활과 한국교회를 맡아주실 임희완 교수님은 <서양근대

사에서의 종교적 역할>, <영국혁명과 종교적 급진사상>, <역사학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로 교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 오신 분이다. 현재 안양성결교회의 복지부를 섬기고 계신 장로이기도 하신 임교수님은 학교와 교회의 대선배이자 평소 테이프를 통하여 꾸준히 말씀을 사모해온 이종윤 목사님을 통해 이번 심포지움의 강단에 서게 되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임희완 교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계시다고, 물질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된 옛사람을 벗고 주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이자 평소 임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끝으로 임희완 교수님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청교도에서 영국장로교회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서 서울교회가 중심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제 1 회 서울신학 심포지움은 오늘 23일(금)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나소정(편집부)

## 주님을 영접한지 어느덧 8년

### 서창원 집사 (10교구)

불신앙의 가정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위하여 욕망과 물욕으로 생활을 하였던 나는 8년 전 건축문제에 어려운 역경 중에 아내가 섬기는 서울교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권하였던 아내의 말을 듣고 상담에 응하였던 중 웬 은혜입니까? 그 전에 마치못해 어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몇 차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였던 나에게 확실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나는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품으로 우리 가정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감동 감화 주셨고 새가족부에 등록하여 성도간의 교제를, 차량봉사와 안내위원까지.

오 주님 죄 많은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목회자 신학세미나, 김치 세미나 봉사를 통하여 나에게 많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후일은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용기를 내립니다.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크고도 비밀스러운 큰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끝으로 논현동 반포동 서울교회의 시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대치동 서울교회 예배당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 새로 왔어요 금불상을 멀리하고

### 김형신 성도, 현기옥 집사 (1교구)

큰 시누이의 소개로 결혼하고 보니 시아버님은 금불상과 불단을 차려 놓고 경을 외우고 계셨고 시어머님은 저를 강제로 절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4년만에 분가하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남편도 3년 전부터 부모님 몰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의 고등학교 때문에 삼성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시아버님께서 집도 풀기 전에 거실에 금불상과 불단을 차려 놓고는 귀신을 쫓는다고 경을 외우기 시작하셨고 우리 가족은 안방에 모여 기도하길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한 후 시아버님께 나가서 말씀드렸죠. "아버님, 저희 가족은 불상 없이도 하나님과 잘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치워 주세요." 아버님께서 즉시 "배신자,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시며 남편을 보고 "너라도 같이 불경을 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저도 3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난리를 치른 후 불상은 큰 시누이 집으로 옮겨졌고 대노하신 아버님은 일체의 재산 상속은 없으며 우리와 절연을 선언하시고 가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거역했지만 다 털어놓고 나니 뭇뭇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 행복했고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증언한 남편께 지금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 이사하던 전 가족이 함께 믿음의 단을 쌓기 위해 새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생각해왔는데 집을 손보러 오신 분이 이종윤 목사님께서 시무 하시는 서울교회가 바로 앞에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전 가족이 기쁨으로 즉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성규,형규)과 함께 주일9시 가족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김익권, 한정희)의 구원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한다는 두 분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있었다.



두 아들과 함께 한 김형신 성도, 현기옥 집사



**탈방-은빛찬양대**

# 잔잔하지만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찬양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 받기 쉽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운 것이어서 늘 의미 있고 즐거운 것으로 서울교회 노년층에 일기 시작한 찬양의 불씨는 작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의미들을 던진다.

매월 첫째 수요일부 예배 은빛 찬양대의 찬양이 이 불씨의 현상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됐다.

"오랜 삶의 연륜과 믿음이 배어있는 잔잔하지만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찬양은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라는 어느 집사님의 말처럼 조용히 교회 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은빛찬양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은빛 찬양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제 소망부와 경로대학과도 연계하여 소망부의 각종 애-경사에서의 찬양은 물론 경로대학 내에서도 은빛 찬양대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며 좀 더 많은 남자 성도들의 참여도 부탁하신다는 이응선 장로(은빛찬양대 대장)에게서 젊은이들 못지 않은 믿음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단원의 연령이 65세에서 이제 90을 바라보는 분까지도 계신다니 찬양준비가 수월치 않을 것 같았으나 백영희 권사(은빛찬양대 부대장)는 "찬양이 은혜로운 것은 60여명의 단원들이 모두 한 달에 한번 있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발적이며 매주 주일 오후에 모여 열심히 연습할 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 생활에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보우 집사(은빛찬양대 지휘)는 지휘자로 찬양연습 때 단원들의 모든 정열과 열성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이 시간이 그분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새로 다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은빛 찬양대가 지금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은빛 찬양대에 그 동안 복음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목회자 세미나, 김치 세미나 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 서울교회의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규모와 지명도를 가진 교회들이 지역의 소외된 외로운 노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노인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은빛 찬양대를 기대해 본다.

김시환(편집부)



진지한 태도로 연습에 임하고 있다.

수요일예배 시작 전-경건한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은빛찬양대

## 유아부 학부모 초청 간담회

유아부는 0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들이 모이는 특수 부서로써, 아직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넣는 것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그림을 그려 넣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부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부모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일관된 교육으로 영아들의 가치관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 하에 유아부에서는 유아들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는 학부모와 함께 가정에서도 성경에 근거한 참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의 방향을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의 기대 효과는 **1.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역할 재확인 2.교회와 가정의 일관된 교육으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 3.부모들의 적극적인 유아들의 신앙교육 유도**로서 이 같은 기대들이 모두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유아부 학부모 여러분의 유아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간담회에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일 시 : 2001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2.장 소 : 서울교회 본당 및 유아부실

3.대 상 : 유아부 학생과 학부모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9-20일 총회 신학 교육부 주최 신학교수 세미나에서, 그리고 21일에는 군 선교연합회와 군목단 주최 전국 군목 수련회에서 각각 강의를 한다.
- 김상철 장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오늘을 조명하며 미래를 제시할 [미래한국] 주간 신문을 창간한다. 26일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 홍순복 사모는 22일 건국대학교에서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태상 집사, 김희숙 권사 (5교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경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예 배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